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5강 (이기식)

Epic History Lecture 5 by Lee Gi-shik

“독생녀 계시와 참부모 현현 (Revelations Regarding the Only Begotten Daughter and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Translated by: Amanda Hokanson

First Edit by: Motomi To

00:00:14:15 - 00:01:02:47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5강 독생녀 계시와 참부모 현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참부모 메시아를 위한 기대, 10장 10주제부터는 좀더 이제 독생녀를 맞이 위한 계시와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좀더 포커싱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10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부모님께서 이 한반도에 기독교를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so far. I will be presenting Lecture 5: “Revelations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and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So far, we have reviewed content on the foundation for the Messiahs, True Parents, and now I’d like to start with Chapter 10, Theme 10, and examine “Revelations and Preparations to Meet the Only Begotten Daughter”. Among the contents in the tenth theme that describe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re is a key point: Heavenly Parent brought both Christianity’s returning Lord and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o the Korean peninsula.

00:01:02:52 - 00:01:51:56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독생녀의 탄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늘이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해나오셨는가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대 독녀 조원모 외할머니 대모님 그리고 참어머님으로 이렇게 되는 원리적인 삼대 독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참아버님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왜 신령공동체를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되면 아시다시피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들이 강제됩니다.

Of all this content, the most important part is how Heaven carried out the providence of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centering on the Christian foundation. We are familiar with Mother's words—and even True Father speaks about this core content—on the principle of three generations of only daughters; Jo Won-mo, Mother's maternal grandmother, Daemo nim, and True Mother. Yet, I would like to draw attention to why the only begotten Daughter was born into a spirit-led community. If you look at the Japanese colonial era, as you know, they forced Shinto worship.

00:01:52:01 - 00:02:48:38

창씨 개명도 강요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산중이나 지하로 숨어들면서 기독교적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전통과 정통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늘부모님께서도 또 신령공동체를 통해서 독생녀를 보낼 기반을 조성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한민족의 어떤 대망사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민족의 대망사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감록이라든지 격암유록 그리고 공자의 성인 사상이라든지 정토사상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륵불 사상. 천도교 사상이라든지 동학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한민족에 나타나는 이러한 대망사상은 결국 한민족 역사 안에서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They also forced Koreans to adopt Japanese names. Meanwhile, Christians reject all this calling it idol worship and go into hiding in the mountains or underground, beginning a movement to preserve the orthodoxy of the Christian faith. These believers bring about a tradition and orthodoxy of faith that attends Heavenly Parent. Particularly, a foundation is formed on which Heavenly Parent can se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rough a spirit-led community. When we think of the "Great Hope Theory" of the Korean Han people, we've heard of many variations including the Jeonggamnok (Prophecies of Jeong Gam), the Gyeongam Yurok (Nam Sago Prophecy), Confucius's theories on saints or pure land, Maitreya thought, Cheondoism (Religion of

the Celestial Way), and 'Donghak' (Eastern Learning). However, all these philosophies agree on the Great Hope Theory, which is unique to the Korean Han people, that Heaven's representative will appear among them.

00:02:48:38 - 00:03:36:49

이 내용은 19세기 말에 이렇게 연결되어 지금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 쪽에서 기독교가 보통 천국과 재림신앙 그러니까 대망사상은 재림신앙입니다. 연결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한민족 가운데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죠.

This content coalesce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oday's Christian, and especially, Protestant belief systems. On the Protestant side, Christianity generally believes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Second Coming. In other words, the "Daemang Sasang" (The Great Hope Theory) is faith in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The key point here is how we take this and put it into a principled or providential context. Heaven must have made many preparations in order to bring about the birth of both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among the Korean Han people.

00:03:36:50 - 00:04:14:29

천손사상 평화애호사상, 그리고 정절과 순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한 이런데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민족성, 그리고 공생과 공영에 관한 그리고 공의로움에 대한 이런 민족성을 길러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접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재림 메시아와 초림독생녀를 현현시키기 위한 섭리가운데 루터에 대한 얘기 또 칼뱅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543년 특히 칼뱅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Throughout history, Heaven fosters within the Korean Han people certain qualities such chastity and purity, a love for peace, and philosophies including Heaven's Descendent Thought (belief in being descendants of Heaven), "love god, love people, and love your nation",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 values. Then Heaven engrafts Christianity. And for the advent of

the providence of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Arrival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news spreads about Martin Luther and Jean Calvin. There was especially a lot of talk about Calvin in 1543 and some people began to question.

00:04:14:33 - 00:04:48:44

원래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1536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2판이 1939년, 3판이 1943년 완성이 1959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부모론에도 나옵니다만, 이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의미는 섭리적으로는 참어머님의 탄생과 수리적인 400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이 3판에 해당하는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칼뱅이 기독교의 어떤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완성했다 라고 아니면 중요한 틀을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The original edition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as published in 1536. The second edition was published in 1539, the third edition in 1943, and the final edition in 1959. This is referenced in the *Chambumo Ron* (Discourse on the True Parents), but the providential significance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relates to the birth of True Mother and the numerical 400 years leading up to it. In fact, the significance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s three editions in Christian history, is foremost, said to have completed some systematic issues within the Protestant church or established an important framework.

00:04:48:45 - 00:05:29:07

이때에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칼뱅이 쓰게 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종교혁명이 확산되는 데서 큰 영향을 줬다는 게 기독교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에 사도신경이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접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은 개신교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카톨릭적인 내용입니다. 카톨릭의 어떤 신앙이, 또 개신교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또 연결시켜 주는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 3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It is around this time that Calvin wrote a paper called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The Christian church attributes this paper to having great substantial influence in spreading the

Religious Revolution. The Apostles' Creed also became deeply embedded. As you may be aware, the Apostles' Creed is not originally Protestant but comes from Catholicism. Some parts of the Catholic faith and other foundational elements that could unite with Protestantism was then incorporated into the third edition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00:05:29:09 - 00:06:04:46

그런 의미에서 섭리적이고, 또 기독교의 역사적 가운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943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청교도를 거쳐서 미국 대각성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한반도에 연결된 어떤 미국의 기독교적 기반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8세기에 한 번, 19세기 두 번, 20세기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반도에 연결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하디 목사 이런 분들이 한반도로 들어오시는데요.

This undertaking had providenti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o Christianity, which is why we pinpoint the year 1943. We can furthermore draw a connection through Puritanism all the way to the Great Awake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Great Awakening is the found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that wa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four waves: o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twice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once in the twentieth century. During each wave, American Christian leaders entered the Korean peninsula among whom are familiar names such as Appenzeller, Underwood, Gale, and Hardie .

00:06:04:51 - 00:06:46:36

1885년에서 1890년 사이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25세, 26세, 27세 젊은 선교사들이셨는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제3차에 참여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장로교, 감리교를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하디 목사 특히 저 하디 목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 기독교가 연결되는 한반도의 연결되는 측면에 있어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섭리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적인 접목의 형태고요.

Those four arrived in Korea between 1885 and 1890. They were all young missionaries ages 25,

26, or 27, who participated in the third wave of America's Great Awakening. These people connect the people of Korea to Presbyterian and Methodist faiths. Between pastors Appenzeller, Underwood, Gales, and Hardie, I've learned that Pastor Hardie's influence was the greatest. Of course, in Japan too there was a lot of influence and connections with Christianity a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from a providential viewpoint, Japan is also taking the form of engrafting to Christianity.

00:06:46:41 - 00:07:19:27

섭리적으로 더 중요한 인물은 우치무라 간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조선에 대한, 성령 운동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특히 재림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1919년에서 20년 사이에 재림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되고요. 또 이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가 함석헌. 함석헌 선생의 제자가 유효원 협회장입니다. 원리강론을 쓰신.

I believe that Uchimura Kanzo was an even more important figure to the providence. The professor in the last lecture mentioned Uchimura Kanzo. He had a direct impact when it came to matters of Joseon, the spiritual movement, or the Second Coming, and accurately predicted that the Second Coming would appear between 1919 and 1920. In addition, Ham Seok-heon was a disciple of Uchimura Kanzo and Eu Hyo-won, who later became the national president of [FFWPU] and wrote the Exposition of the Divine Principle was a disciple of Mr. Ham Seok-heon.

00:07:19:27 - 00:08:04:41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 오산학교에 있을 때에 재직할 때에 1928년부터 38년인데요. 그 때 유효원협회장이 오산학교 다니셨고, 아버님이 그 학교에 사실 다녔습니다, 그 학교에. 그리고 오산학교에 34년 5월에 입학하셔서 35년도 3월에 정주보통학교로 가시고 두 달이 채 안 돼서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의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섭리사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은 미국의 기독교 영향을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섭리적 관점에서는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이 더욱 더 컸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아벨적인 인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Mr. Ham Seok-heon taught at Osan School from 1928 to 1938 and President Eu Hyo-won attended Osan School during that time. In fact, Father also attended that school during that period. Father began studying at the Osan School in May 1934, and he transferred to Jung-ju Public Normal School in March 1935. Barely two months later, Father met Jesus on Mount Myodu. From this point of view, both American Christianity and Japanese Christianity had a big influence on the people who played substantial and crucial roles in our providential history. However, I believe that from a providential perspective, Uchimura Kanzo had the greatest influence and fulfilled this role as an Abel figure.

00:08:04:45 - 00:08:51:24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한국에 조선에, 기독교가 접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대각성운동과 원산, 평양대부흥회로 이어집니다. 우치무라 간조도 저걸 보지요.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한반도에 있었던 대망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그것이 기독교의 대망사상도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있었던 정감록 격암유록 그리고 성인사상, 정토나 미륵불사상 그리고 동학이라든지 천도교에서 꿈꿔 왔던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갈 하늘이 보내신 그 인물을 기다리는 데서 그러면 하늘이 기독교에다가 접목을 이 한반도를 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대망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w we run into a problem. God is engrafting Christianity to Korea, to Joseon. This was followed by the Great Awakening of Joseon and the Great Revivals of Wonsan and Pyongyang. Uchimura Kanzo recognizes this and talks about it. So the issue here is, the Korean peninsula already had faith in the Great Hope. Christianity's Great Hope Theory was also there, but the Korean peninsula had the Jeonggamnok, the Gyeongam Yurok, theories on saints and pure land, Maitreya thought, Cheondoism, and 'Donghak'. All of which dreamt and waited for a new age ushered in by a figure sent by Heaven. Hence, if Heaven were to engraft such a Korea to Christianity, what direction should Christianity's Great Hope faith go? We can find the answer in True Parents' words.

00:08:51:29 - 00:09:27:52

인류 역사는 참부모 복귀역사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수고해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1차적인 책임은 뭐냐. 재림주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시고요. 예수님이 못다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71년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독생녀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입니다.

True Father says, "Human history is a history of restoring the position of True Parents.... God has toiled for six thousand years to establish this standard." He clearly speaks about the principled world view of the providential history of salvation. What was the Second Coming of Messiah's first responsibility? The returning Lord came to complete the ideal of the True Parents. He clearly says he must find the bride that Jesus was unable to find and become the True Parents. In this speech from 1971, Father says, "[Jesus] was unable to meet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refore, Jesus must come again to meet that only begotten Daughter who can receive all of God's first love."

00:09:28:06 - 00:10:02:24

재림주가 와서 뭘 할 것이냐, 어린양잔치, 즉 혼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독교. 하늘이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을 위해서 접목해준 연결시켜주는 기독교 기반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 하면 크게 두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기독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영성부흥운동, 또 하나는 민족독립운동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성령운동입니다. 길선주 목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What will the returning Lord do? He must carry ou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in other words, he must marry." True Father said it plainly. However, Heaven engrafted Korean Christianity to build a Christian foundation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Christian history explains that it largely took two different paths. One is the

national spiritual revival, and the other one is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Therefore, Korea's Christian Church is part of the spiritual movement led by Rev. Kil Son-ju.

00:10:02:29 - 00:10:46:22

그리고 이 내용이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속에서 강력한 성령체험과 영적 각성이 강조되고, 회개와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전까지 유교적 문화에 젖어있던 이 조선의 어떤 그런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하디 목사가 와서 회개라는 개념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성령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식민지 시기이기 때문에 민족의 해방과 구원이 강조되면서 메시아 대망과 열망이 확산된다고 이렇게 기독교 자체 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e Pentecostal spiritual movement, he preached that Pyongyang was the East's Jerusalem. During this time there was a lot of emphasis on powerful encounters with the Holy Spirit, spiritual awakenings, repentance, and salvation. Until then, Joseon was a Confucian culture so how did one describe such spirituality? Rev. Hardie teaches them the concept of repentance and as this concept spread, it played a vital role in expanding the Christian spiritual movement. Meanwhile,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and the Christian church actually explains that the liberation and salvation of the people strengthened their hope and desire for the Messiah.

00:10:46:27 - 00:11:23:32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와 한국적 영성이 통합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대망신앙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말씀과 섭리로 볼 때에는 분명하게 이게 참부모 대망이었습니다. 참부모 대망신앙이었어야 됩니다. 즉 재림 메시아도 대망을 해야 되지만, 초림 독생녀 신약의 목적이 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 분명히 기록된 재림주가 와서 해야 될 어린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완성시켜야되는 개념인데,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참부모 대망사상입니다.

Here we can affirm that the Christian church of the West and the spirituality of Korea united. Now the question is what role should the Great Hope in Christian faith have played? According to True

Parents' words and the providence, it should have been the Great Hope for True Parents. It was supposed to be the Great Hope for True Parents. In other words, yes, we need to hope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but the purpose of the New Testament was for the arrival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as clearly recorded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s 19 to 22 where it says that the returning Lord will hos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se revelations are meant to be fulfilled and according to True Parents' words it is the "Daemang Sasang (Great HopeTheory)" for the True Parents.

00:11:23:36 - 00:12:08:24

재림 메시아 대망과 초림독생녀 대망사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때 1900년도 초,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있었던 기독교 성령운동은 원래는 재림주와 초림 독생녀를 맞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성령운동으로 독생녀를 대망하는 신앙형성에는 실패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한계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희들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동안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다가 오시는데 재림주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The great hope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should have naturally led to the great hope for the arrival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 Christian spiritual movements in Korea during the early nineteen hundreds,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ere supposed to prepare for both the returning Lord and the coming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but failed to do so. The male-centered spiritual movement failed to form a faith that longed for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re is a fundamental reason for this failure. Paul Tillich said that there was a fundamental limitation to the Christian faith. What was it? As we know, Jesus died on the cross, was resurrected after three days, and stayed for 40 days before returning to heaven. During this time, Jesus said that he would come again.

00:12:08:28 - 00:12:47:58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의 본질이 뭐냐를 여기 폴 틸리히 라고 현대 기독교 신학의 양대 구도, 신정통주의를 이끌었던 칼 바르트와 더불어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 안에 여성적 요소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대교를 따르고 있다. 성령의 표상도 이 여성적 요소의 결여를 보충할 수 없다. 성령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탄생이야기에서 남성적 요소로 등장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다.'

He also said that he would send the Holy Spirit, the Advocate. This is what we know. Paul Tillich breaks down the essence of the Holy Spirit that Christianity speaks of. Together with Karl Barth, he describes two main structures of contemporary Christian theology and neo-orthodoxy. This is what he says, "Christianity did not [have a female element in the center of religion]. In this it followed Judaism, which discarded every female element. The Spirit was not able to replace the female element. First of all, the Spirit appears, in the stories of Jesus' birth, as the male factor. Secondly, the Spirit is an abstract concept."

00:12:48:04 - 00:13:22:56

무슨 얘기냐?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 안에, 특히 신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기독교의 그 성령이라는 개념에는 여성적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아버님께서도 실체 성신에 대한 말씀을 기독교 성신, 성신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불 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그 본성품만이 이 땅에 와서 영적으로 잉태하여 해산의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다." 이게 실체가 없죠.

What does this mean? Whether in Judaism or Christianity, especially in expressing godly concepts or in Christianity's concept of the Holy Spirit, there is essentially no feminine element present. In True Father's words about the substantial Holy Ghost, he says that "[Christianity's Holy Ghost in itself] does not possess a substantial form. Rather, the Holy Ghost is described as light or as oil, and only its true nature came to this earth to conceive spiritually and perform the rite of childbirth. This is Christianity's history." Meaning there is no substantial form.

00:13:23:01 - 00:13:56:49

존 Hicks라고요 유명한 어떤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주도하시던 갓 컨퍼런스도 오셨던 분인데 성령이 뭐냐?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실체가 없고 영적인 얘기, 성신의 개념은 조금 여성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개념의 본질은 뭐냐면 남성 중심의 성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림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맞습니다.

There is a famous Christian theologian named John Hick. He even attended a God Conference that our True Parents hosted. One day he asked, "What is the Holy Spirit? I cannot come to a conclusion." Since this is a spiritual topic, there may have been some background to offer a feminine explanation to an insubstantial spiritual issue on the concept of the Holy Ghost. Yet today, [spirituality] is largely consolidated into a single concept of the Holy Spirit and this idea is essentially a male-centered Holy Spirit. This does make it possible to explain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00:13:56:54 - 00:14:37:10

하지만 초림 독생녀에 대한 신학과 신앙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어린양 혼인잔치, 즉 쌍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본적 한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승리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그 개념은 곧 남성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것을 폴 틸리히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안에 여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이 뭘까?

However, it does not allow room for the development of a theology or faith centering on the arrival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is is fundamentally due to the fact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He could not hos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nor could he find a partner and marry. Christianity's fundamental limitation is that it began on the main premise that Jesus' death on the cross was a victory. And if this is the case, then the essence of the Spirit that Heaven sent to Jesus as the Holy Spirit must also be masculine as he was. This is what Paul Tillich is pointing out. That there is no feminine element in the Holy Spirit. How do we know this?

00:14:37:15 - 00:15:25:16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안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어린양 혼인잔치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2000년간 형성해온 그 신학안에는 쌍의 개념이 없죠. 있다 하더라도 신부라는 개념을 교회라고 규정을 했으니깐요. 그런 관점에서 초림 독생녀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결여된,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에 전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독교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한계는 재림 메시아의 부인, 즉 독생녀를 찾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재림주만 대망하는 신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If we think about it, Revelations clearly states tha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must take place. But throughout the last two-thousand years, Christianity has not developed the concept of a pair in its theology. And even if there was, the concept of the bride was defined as the church. From this perspective, the theology and faith of the arrival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was introduced to Korea in a state where it was practically nonexistent. This is probably true not just for Korea but also to Christianity worldwide. Therefore, the most fundamental limitation to the Christian faith and the Second Coming was that they should have been searching for the Second Coming's wife, the only begotten Daughter, but instead Christianity became fixed as a faith that had great hope for the returning Lord alone.

00:15:25:21 - 00:16:04:10

그래서 독생녀를 찾는 어떠한 신앙, 신학도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세 가운데 윤혜선 박사라고 있습니다. 윤혜선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령이라는 개념 안에 남성적 개념이 들어오는 때가 1980년 이후라고 합니다. 볼트만이라고 하는 학자, 일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망사상이든 어느 시대건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대망인데요. 새로운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대망사상의 핵심은 남성입니다. 재림주도 그렇고 진인도 그렇고 4대 성인이라는 그 분들은 다 남성이거든요, 사실은.

Therefore, no faith or theology that sought the only begotten Daughter could be formed. There is a second-generation member named Dr. Yoon Hye-seon. According to Dr. Yoon Hye-seon's

research, the concept of a masculine Holy Spirit doesn't appear until after 1980s. A theologian named Rudolf Bultmann studies this. The Great Hope Theories, regardless of era, almost all have men at their core. Even Christianity is based on a "Great Hope Theory". Doesn't it wait for some new savior? The returning Lord is male, the true man [in Daoism] is male, and in fact all the four great saints are male.

00:16:04:15 - 00:16:40:59

그래서 하늘의 뜻을 놓고서 봐서는 참부모 대망사상이어야 되는데 그 대망사상과 신앙이 결여되어 있고 독생녀 대망사상과 신앙은 아예 흔적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초림 독생녀를 맞이하던 기독교의 준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God's Will, we needed the "Great Hope Theory" for the True Parents. Yet, such a theory and faith for the True Parents are absent and we can barely find any traces of it toward the only begotten Daughter—nothing at all.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Christian Church failed in its responsibility to prepare and welcome the arrival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00:16:40:59 - 00:17:28:52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연결된 이 내용이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아버님의 어떤 신앙의 출발점의 어떤 시기를 보게 되면 미국 북장로 계열인 걸 보고 있습니다. 오산학교가 그 계통입니다. 오산 학교가 애국선민사상과 성서관을 가르치던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 오산학교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 민족지도자들을 강하게 양성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을 아버님께선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문도 접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러한 성서에 입각한 애국선민사상과 성서관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고 크게 영향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때에 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기독교를 연결시켜 주는 하나님의 뜻가운데 재림 메시아 섭리기대는 만들어졌습니다.

America's third Great Awakening sparked the Great Revival of Pyongyang. And the starting point of Father's life of faith is considered to be affilia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 which Osan School had roots in. The Osan School taught ideologies in

patriotism and the chosen people, and views on scripture. It is also well-known for having raised a lot of strong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From this, we can infer that True Father was also directly impacted by this education. As I mentioned earlier, he was not only largely exposed to theological texts, but also to views and ideologies on patriotism and the chosen people grounded in scripture.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vidence, God built a providential foundation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ccording to his Will by connecting Christianity to the Korean Han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00:17:28:57 - 00:18:20:12

그런데 재림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1차목적인 초림 독생녀를 맞이하시는 섭리기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준비된 개신교 주류 교파, 즉 장로교, 감리교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못하자 하늘부모님께서 독생녀 참여머님을 보내기 위해서 신령공동체를 준비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여성공동체에서 김성도, 허호빈, 박을룡 남성 신령 공동체로서 백남도, 이용도, 김백문 이런 분들입니다.

However, the Second Coming's most important mission when he returned was to fi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and yet the providential foundation to welcome her was not laid. Heavenly Parent prepared mainstream Protestant denominations—such as Presbyterian and Methodist—but they did not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herefore, in order to se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Heavenly Parent prepared spirit-led communities. In these communities, representing women there were Kim Seong-do, Heo Ho-bin, and Park Eul-ryong, and representing the masculine Holy Spirit there were leaders such as Beak Nam-do, Lee Yong-do, and Kim Baek-moon.

00:18:20:17 - 00:19:01:19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독생녀 탄생을 준비한 기대를 조성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주교의 김성도, 북중교 허호빈, 박을룡 이런 분들이 어떤 개념을 쓰냐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자칭, 스스로를 하나님의 신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은 재림주와의 결합을 위한 준비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성령운동은 남성 중심의 성령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될 때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개념은 이게 인간의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교회가 신부라는 개념에서 이제 인간, 특히 김성도 쪽에서 나온 애기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은 혈통죄, 그리고 재림주가 육신을 쓰고 이 한반도 땅에 이런 내용들이 계시되게 됩니다.

Through these individuals [God] builds the foundation for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re is some significance here. Rev. Kim Seong-do of the Holy Lord Church, Rev. Heo Ho-bin of the Inside-the-Womb Church, and Mrs. Park Eul-ryong start using a new term. They begin to proclaim themselves "God's bride" and defin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s his brides. From here emerges a new concept that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s to prepare for a union with the returning Lord. Let me remind you that up until then all existing spiritual movements were centered on men. One more thing here is that compared to any existing church, the concept of God's bride is replaced [from a spirit] to a human being. As we all know, this was especially coined by Rev. Kim Seong-do's church. She is the one who receives revelations that the Fall was a sin related to lineage and that the returning Lord would come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lesh.

00:19:01:24 - 00:19:40:00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재림관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띠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신부 로 선포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영적인 성령개념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부 개념은 재림주도 육적으로 오시고, 또 하나는 그 신부도 육신을 쓰고 온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감리교나 장로교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다른 실제 육신을 쓴 독생녀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These concepts are completely at odds with the existing views on the returning Lord. And by proclaiming themselves as God's brides they overcome any conceptual restraints on the Holy Spirit. The concept of God's bride allows space to accept and develop the idea that the returning Lord will come in the flesh, and his bride will also come in the fresh. So it is from this that the concept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coming in a substantial body begins to develop, unlike

any existing claims by orthodox Christianity such as in Methodist or Presbyterian doctrines.

00:19:40:02 - 00:20:15:39

그리고 이용도 목사, 백남주 목사 이런 분들은 정통 신학을 배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린양혼인 잔치와 신부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며 이를 통해 어린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받는다 이걸 놀라운 내용이죠. 교회가 신부라는 개념에서 이제 개인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다 전환됩니다. 그러한 개인으로서의 신부로서의 부름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순결 정결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설명하게 됩니다.

People like Rev. Lee Yong-do and Rev. Baek Nam-ju who studied orthodox theology, hear this [new interpretation] on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the bride. They are shocked that believers [in Christ] are experiencing spiritual oneness with Jesus Christ and are being call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s his brides. The teachings everywhere transform from "the church is the bride" to now "the individual can become the bride." They explain that when a woman is called to be a bride in whom the Holy Spirit can reside and give guidance, she has entered a process of becoming spiritually purified and chaste.

00:20:15:44 - 00:20:54:33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재림주 대망사상을 넘어서 독생녀로 나아갈 수 있는 과도기적 신앙의 형태가 여기서 신령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시다가 예수교회와 성주교 신앙, 그리고 딸인 대모님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 예수교회, 원래는 이용도 목사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회. 이름 자체는 인터넷을 쳐보면.

Therefore, a transitional form of faith that can overcome any existing Adventist expectations present in the Presbyterian or Methodist Churches and lead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emerges in spirit-led communities. Grandmother Jo Won-mo and Hong Soon-ae Daemo nim are part of one such community. Grandmother Jo was a devout Christian and attended the New Jesus

Church and the Holy Lord Church, and later, guided her daughter Daemo nim on the same path. The New Jesus Church...Originally it was just called the "Jesus Church" that Rev. Lee Yong-do pastored. Jesus Church. That's its name if you search for it on the Internet.

00:20:54:38 - 00:21:35:39

그런데 왜 새 예수교회라고 하는 저는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저렇게 쓰셨답니다. 예수교회 중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새 예수교회와 연결된 분이 아마 교회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교회인데 이용도 목사가 주도했던 새 예수교회에서 하늘의 인도로 대모님과 대부님이 만남시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하늘부모님의 인도로서 이제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승운 대부님 께서도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을 하시고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깊은 신앙적인 실천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Then why do we call it the "New" Jesus Church? I didn't make a mistake; Father changed its name. The Jesus Church has several sects, and I believe that Father changed the name of the sect that later connected with our movement. So, the Jesus Church that became the New Jesus Church was led by Rev. Lee Yong-do. Both Daemo nim and Daebu nim were guided by Heaven to this church. And this is where Heaven eventually guides them to meet. Han Seung-un Daebu nim was also a devout believer at the New Jesus Church and practiced his deep faith as the director of an education department.

00:21:35:45 - 00:22:09:17

그리고 또 새 예수교회의 대모님이 함께 신앙을 하시는 가운데 조원모 외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됨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처럼 성취가 됩니다.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인침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Additionally, Grandmother Jo Won-mo continued to practice her life of faith alongside Daemo nim at the New Jesus Church. This is how a foundation was laid to prepare for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rough this process,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comes to fruition as it says in Revelation 21:9. In 21:9 it says, "Then one of the seven angels...came and said to me, "Come, I will show you the bride, the wife of the Lamb." This is the part where God is placing his seal.

00:22:09:17 - 00:22:41:56

우리가 한승운 대부님과 대모님의 결혼식의 섭리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딱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먼저 사가랴 집에 보냅니다. 사가랴 집에 보내서 너희의 사명은 메시아를 모시는 거다. 앞으로 오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하나 보내주마,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How can we best understand the providential significance of Han Seung-un Daebu nim and Daemo nim's marriage? It is crystal clear in Luke chapter 1. God sends the angel Gabriel to Zechariah's home first. The angel told them that their mission is to attend the Messiah, and that God will give them a son. Then where does Gabriel go next? He seeks out Jesus' mother, Mary.

00:22:42:01 - 00:23:17:06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름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마리아찬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이종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나와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놓고있는 애를 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이있다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When he appears before her, he tells her that God will send the Messiah through her. "And you will name him Jesus". He even tells her the name. So, Jesus' mother Mary accepts her calling. The

Christian Church calls this the Canticle of Mary. To put it simply, Mary accepts God's seal to bear the Messiah in her body. Then Mary goes to Zechariah's home. Elizabeth, Mary's cousin by her maternal aunt, comes out first and her [spiritual eyes] see a child playing in the womb of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she says, "blessed are you."

00:23:17:19 - 00:23:51:56

거기서 3개월에 임신을 하고 정혼자 요셉에게 가는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인침을 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독생자를 보낼 때 하늘이 인침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게 인침을 하시는 사건인데요. 한승운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이 이 새 예수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Luke 1 records that Mary remained there for 3 months, becomes pregnant, and returns to her fiancé Joseph. We know that Heaven put his seal on Mother Mary in order to send the only begotten Son. Therefore, it stands to reason that there was a specific instance for Heaven to mark that family with a seal. At the New Jesus Church Han Seung-un Daebu nim and Hong Soon-ae Daemo nim were guided by God to marry.

00:23:51:56 - 00:24:31:47

어머님께서 지난달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 가정에게 독생녀를 탄생시키겠다 라고하는 하나님의 인침이 결정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침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한승운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가정에 독생녀를 탄생 시키겠다라고 하는 인침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천주 성혼과 참부모 현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ast month, Mother said that God's tremendous Will was at work here. What does she mean? We can understand it as a specific event that decided this couple worthy of God's seal to give birth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 wedding ceremony between Han Seung-un Daebu nim and Hong Soon-ae Daemo nim was the event that allowed God to finally mark his seal upon this family as the one he would send his only begotten Daughter through. This ultimately led to the cosmic Holy Wedding and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00:24:32:00 - 00:25:23:19

아시다시피 하늘의 뜻은 아담과 해와의 성혼으로 참가정, 참부모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데 2천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중심 인물 실패로 말미암아서 독생녀 탄생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독생녀를 보내시고 재림 매시아를 소명하시는 가운데 어린양 혼인잔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경륜해 나오셨습니다. 이런 뜻 가운데 하늘부모님께서 한승운 대부님과 대모님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가정에 독생녀를 탄생시키겠다 라고 하는 인침을 하시고, 그렇게 결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모님께 “아들이면 우주의 왕,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라고 하는 계시를 직접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As you may know, Heaven's Will was for Adam and Eve to marry and build a true family as true parents; and two-thousand years ago, it was impossible for the only begotten Daughter to be born due to the failures of central figures around the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And once again in this era, Heaven attempted to send his only begotten Daughter and call his only begotten Son to continue to advance the providence to fulfill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midst this, Heavenly Parent marked Han Seung-un Daebu nim and Daemo nim with his seal during their marriage ceremony to bless them with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Not long after their marriage, Daemo nim had a revelation directly from God saying, "If you give birth to a son, he will become the king of the cosmos, and if you give birth to a daughter, she will become the queen of the cosmos."

00:25:23:24 - 00:26:07:34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어떤 종교와 또 내용들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 대의 성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인침을 준 사건은 기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앉았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최후의 담판기도를 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데 직접 중심인물로서의 어떤 그런 인침을 주는 사건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This content may differ slightly from other religions or teachings. For example, during Jesus' period in the Bible it is difficult to find any record of God appearing directly to Jesus and giving him his seal. When John the Baptist had baptized Jesus in the Jordan River, God's Spirit descended as a dove and alighted on him. There is a scene when Jesus is offering his last prayer in Gethsemane. There are other momentous scenes too. Yet, although Jesus was a central figure, there is no record in the Bible of an event at which God marked him with his seal.

00:26:07:49 - 00:26:53:03

또 마호멧을 보더라도 마호멧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호멧에게 인침을 줍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게 되면 참아버님의 재림 메시아로서의 소명에 누가 나타나시느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 물론 뒤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어머니의 독생녀 탄생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모님께 계시를 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의 계시와 독생녀 참어머니의 계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Take a look at Mohammed. The angel Gabriel appears to Mohammed and gives him the seal. Yet when you look at Father, who gives him his calling as the True Father and returning Lord of Christ? It was Jesus, wasn't it? Jesus. Of course, Father also clearly says that God is the one who sent Jesus. However, who appears to the mother who is to give birth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God himself appears. God appears personally to give the revelation to Daemo nim. Why is that? That is, the revelation of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True Father, and the revelation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manifest in different forms.

00:26:53:04 - 00:27:29:15

이유는 무엇이나면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죠. 처음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영인체도 없고 육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게 독생자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생녀 탄생에 있어서 직접 육신의 어머니에게로 계시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체로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했다는 원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There's a reason for this. From a principled point of view,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meaning he is God's first son in all of history. In comparison, there was no substantial form [for a daughter]. To have no substantial form means there is no spirit body and no physical body. Therefore, the revelation that God would send his only begotten Son can only come true through a physical mother. Then what does it mean that the revelation of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was given directly to her physical moth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we can conclude that a substantial only begotten Daughter has yet to be born.

00:27:29:20 - 00:28:00:23

만약에 실체로 태어났다면 예수님 시대에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영인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인체를 하나님께서 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인체의 주관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얘기인데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디에도 독생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독생녀 참어머님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 2000년전에 독생녀는 실체로 탄생하지 않았다 라고 원리적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If someone was substantially born during Jesus' time....to have a substantial form one must also have a spirit body. Father mentions in one of his speeches that right before Jesus died on the cross, God took Jesus' spirit. Meaning that God collected the essence of the spirit body which consequently suggests there has to be a physical form from which to collect. Yet are there any records that an only begotten Daughter was born in the flesh? It is not easy to find. So,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od giving such a revelation to the physical mother of his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We can make a principled conclusion that the only begotten Daughter

was not born two-thousand years ago.

00:28:00:23 - 00:28:46:06

그러한 가운데 성 주교 김성도 할머니께 환시가 보여집니다. 주님의 딸이니 대모님께 하는 얘기는 너는 유모와 같다. 그리고 복종교 허호빈의 모친이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참어머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선민의 민족성을 길러나오셨다는 측면에서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한민족에서 길러 나오신 하나님의 어떤 선민의 민족성, 원리적으로 본 아벨적 민족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Meanwhile, Grandma Kim Seong-do of the Holy Lord Church sees a vision. [An angel] appears to Daemo nim and says, "This baby is the daughter of the Lord and you are her nanny." And Heo Ho-bin's mother of the Inside-the-Womb Church told Mother, "You will become Heaven's bride." All these revelations surround the birth of True Mother. Her birth symbolizes many things, but on our current subject of the chosen people, God fostered qualities befitting them. We can interpret the qualities in the Korean Han people as God-like or Abel-typ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inciple.

00:28:46:11 - 00:29:34:30

그 가운데 이 경천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천손사상이라든지 평화애호사상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부모님의 어떤 이념과는 애천애인애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 우리 민족 가운데 공생이라든가 공영 공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민족성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을 통해서 이미 1943년도에 참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그 노정을 걷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과 독생녀 참어머니에게는 한민족이 길러나온 그 선민의 민족성이 그대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me examples of these qualities include the 'Gyeongcheon Thought' (Thought of the Worship of Heaven), Heaven's Descendent Thought, and love for peace. And each of these can relate to True Parents' ideologies of "love god, love people, and love your nation", or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in our lives and between our people. Therefore, by the

time Mother is born in 1943, True Father is already on the path toward his mission as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You could say that the returning Lord and Messiah, True Father,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inherited these characteristics that had been cultivated by the Korean Han people [throughout history].

00:29:34:35 - 00:30:15:37

그 내용들을 온전히 상속받으신 가운데 이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참어머니로서의 섭리적 경륜, 또 섭리적 노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은 뭐냐? 창조 이상이 무엇이나. 서론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시다만 "하늘부모님의 꿈은 자신을 닮은 인간 시조 아담해와를 창조하시어 그들이 하늘부모님의 이상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될 때 하늘부모님께서 그들의 체를 쓰고, 참부모와 함께 사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Having inherited all of this, the Second Coming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lead the dispensation of the providence and begin their public courses. Mother often speaks about these things asking us, "What is Heavenly Parent's dream?", "What is the ideal of Creation?" I spoke a little bit about this in my introductory lecture, but to reiterate, "Heavenly Parent's dream was to create the first human ancestors, Adam and Eve, who resembled him, and once they could put Heavenly Parent's ideal into practice and unite through love, Heavenly Parent would have become embodied in them and lived together as the True Parents."

00:30:15:42 - 00:31:02:32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동기가 심정과 사랑, 그러면 창조의 법칙은 닮음의 법칙, 창조의 구조는 쌍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 창조의 원칙 1남 1녀의 원칙, 쌍의 원칙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 중심한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나면 그런 내용들이죠. 결국은 기독교를 중심한 섭리는 예수님의 재림주 대망사상을 넘어서 이 기독교의 섭리는 독생녀가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섭리로 확대 발전 심화되어야 했습니다.

One thing is clear. We understand from the Principle that God's motivation, his heart, and his love toward Creation, the law of creation, the law of resemblance, and the structure of creation, are all

aimed at the pair. Even today, Mother continues to teach us that the principle of creation is the principle of a pair—one man and one woman. This is the key point that we must continue to bridge between the providence centered on Christianity. In order to deepen, broaden, and grow the foundation to allow for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 providence of Christianity had to transcend the Great Hope Theory limited to the returning Lord alone.

00:31:02:34 - 00:31:38:28

그래서 하늘부모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새로운 출발로서의 그런 내용으로서 독생녀의 탄생을 향해서 이 섭리가 또 기독교가 유대교가 유대교를 넘어 기독교가 책임했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도 탄생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양 혼인 잔치가 되기 전까지.

This set about a new beginning toward perfecting Heavenly Parent's ideal of creation. We are fully aware that Judaism and Christianity, which transcended Judaism, should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providence toward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Meanwhile,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True Father, is born, and afterwar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is born. Now, a nation centering on Heavenly Parent must be established before it is time for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00:31:38:30 - 00:32:22:04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3.1운동, 1919년의 3.1운동의 의미. 그 당시에는 일제 시대입니다. 주권이 없을 때죠.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가지고 주권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절대 하나도 인정 못 받습니다.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짓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4월 10일날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지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는 때는 언제냐 1942년도입니다. 1942년도에 그 상해 임시정부를 최초로 인정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You have learned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in a previous lecture. This was during Japanese occupation. Korea had no power. However, Korea

made a declaration of sovereignty by found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ocated in Shanghai. However, it did not get recognized overseas. They even decided on the new name Daehan Minguk (Republic of Korea). After the March 1 Movement in 1919, on April 10,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named Korea as Daehan Minguk. But even then, Korea isn't recognized as its own nation until 1942. In 1942, the first country to recognize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China.

00:32:22:08 - 00:33:06:29

그리고 26개국 이 모여 가지고 연합국이 모여서 이게 지금 제2차 세계 대전이 이후에 그럼 식민지를 다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이 1942년도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기반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적, 세계적 기대가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이게 인정을 해줄 뿐 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는 언제 어린양 혼인 잔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어린양 혼인잔치라고 봤을 때 그 어린양 혼인잔치를 향해 가는 가운데 나라는 194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Then 26 countries join to form the Allied Forces and in 1942 they begin negotiations on returning independence to occupied Korea once World War II ended. This becomes the groundwork for a national and global foundation that can support a substantial [heavenly] nation. However, Korea had yet to become a substantial nation as [the Allied nations] acknowledged it in name only. Then when was a substantial nation established s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could be held?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is God's ideal of creation, and the way opens when the republic of Korea is established in 1948.

00:33:06:33 - 00:33:49:22

그런데 이 1948년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를 중심하고서 만들어지느냐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승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부모 현현 1960년 어린양 혼인잔치를 향해 나가는데 국가적 기반은 이전에는 그건 실질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6천년 만에 강림한 독생녀 탄생 2년 후에 연합국에 의해서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닌 밤중에 떡시루 받듯이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in 1948 was achieved centering on Christian leaders. Syngman Rhee. What does this mean to us? God is preparing for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and building a national foundation for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o be held in 1960. A nation without this foundation cannot become an actual state. The only begotten Daughter was sent for the first time after six-thousand years, but only two years after her birth the Korean peninsula faces sudden liberation thanks to the Allied Forces. There is a saying in Korea. “Liberation came upon us in a blink of an eye.”

00:33:49:27 - 00:34:26:12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서 독립을 맞이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하늘부모님께서서는 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또 형성케하시고 또 선민으로 택하시고 섭리역사 6천년에 걸쳐 가지고 재림 메시아, 또 독생녀를 한반도에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께서서는 또, 하늘이 예비하신 재림메시아, 또 독생녀를 찾아 가지고 이게 하늘의 섭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독교를 한반도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didn't achieve independence autonomously. Heavenly Parent shaped the Korean Han people, chose them as his chosen people, and over the course of six-thousand years he brings about the birth of the returning Lord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Heavenly Parent connected the Korean peninsula to Christianity in order to fulfill Heaven's Will in search of the Second Coming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whom he prepared.

00:34:26:17 - 00:35:02:20

그러한 기독교는 성령부흥의 기대 위에 독생녀를 찾고 하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독생녀를 맞이할 수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최초로 세운 한씨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의 나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와 더불어서 초림 독생녀가 탄생을 하고

어린양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국가적, 민족적, 종족적, 가정적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 왕조, 조선이 패망을 하죠.

On the basis of the spiritual revival, Christianity searches for the only begotten Daughter and builds a foundation to welcome her under Heaven's protection. The peninsula is ready to unite as a Great Han nation, which inherits the traditions of the Han Dynasty, the first dynasty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are born and the foundation is laid on the national, tribal, and family levels in order to hos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However, a problem occurs when the Joseon Dynasty collapses.

00:35:02:25 - 00:35:40:56

조선의 패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말 모습, 조선말에 김옥균이라고 하는 개혁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그들이 꿈꿨던 새나라는 뭐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근대화한 일본을 모델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 조선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존의 정한론이 있어요. 그쪽으로 확 기울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일본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래 그러더라고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분이.

Joseon collapses as the peninsula is taken over by Japanese colonialism. Near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 reformist activist called Kim Ok-gyun emerges and dreams of a new nation. The new nation he dreams of was modeled after Japan's successful Meiji Restoration, a modernized Japan. Yet the reformation fails and observing this Fukuzawa Yukichi in Japan thinks, "Ah, Joseon isn't capable" and leans far toward the existing Seikanron (Argument for a Conquest of Korea). Fukuzawa Yukichi is considered Japan's version of King Sejong the Great

00:35:40:58 - 00:36:18:52

그런 분이 확 기울어버리니깐 어떻게 됐든 탄력을 받아 버리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식민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세 그룹이 나타납니다. 이 한국에 한반도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미국과 기독교를 중심으로한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는 그룹이 나타납니다. 이 분이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됩니다. 한국의. 그리고 소련과 공산주의를 중심한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Because a person like Fukuzawa pushes for Seikanron, it gains a lot of traction and ultimately leads to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During colonial rule a lot of people joine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movement branches into three distinct groups, each dreaming of a new nation. The first group dreams of a democratic nation centering on America and Christian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bsequently, they make Syngman Rhee the president. The second group of people dream of a socialist nation centering on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00:36:18:54 - 00:36:56:08

대표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게 김일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민족국가를 꿈꾸게 됩니다. 이런 분이 한국에서 김구, 조만식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한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합의를 못 이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해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늘부모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원래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한씨 왕조로부터 시작되어서 한의 정체성이 이어져 나오는 걸 배우셨습니다 대한제국 으로부터.

The leader of this group becomes Kim Il Sung. The third group dreamed of a unified national state represented by Kim Ku and Cho Man-sik. The problem with the sudden liberation was that these groups had yet to come to an agreement on what kind of nation they should build, especially one centering on Heavenly Parent's Will. But all of a sudden, they are free. In this situation, Heavenly Parent intervenes. We already learned that God safeguarded the identities of the Han people rooted in the Han royal family and the Korean Empire, the origin of the Korean Han people.

00:36:56:09 - 00:37:35:45

대한 독립선언. 1919년 2월 길림에서 있었던 그 대한독립선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승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한의 이념을 계승합니다. 이승만이. 그런 어떤 하늘이 준비한

인물을 하늘이 세우십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반과 전통적으로 한의 이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독교를 중심하고서 남한에 1948년에 대한민국을 출현시켜 줘 버립니다. 이 자체가. 물론 국제정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하늘의 섭리로 보면 그 당시에 절대로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ritten in February 1919 in Jilin Province, [China] included Syngman Rhee's signature. Syngman Rhee inherits the Han ideology. Heaven raises him up as a prepared central figure. Through him, Heaven was able to launch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outh in 1948 on the foundation of a Christianity that inherited the traditional Han ideology. We can interpret this situation [of ideological division] as one due to international climates, yet according to Heaven's providence, there was no coming to an agreement at the time. It was not a situation to do so.

00:37:35:50 - 00:38:12:59

사실은 이게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해 있고, 남한쪽에는 미군정이 주둔한 들어온 가운데 이게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그랬지만 간단치 않았습니.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세우느냐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하고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름은 한입니다. 한. 대한. 이 대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용사같은 겁니다. 대한제국을 세울 때 고종께서 삼한일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삼한의 개념입니다.

In fact, unification wasn't realistic with the Soviet Union in North Korea and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It was certainly possible, but not a simple matter. So what does God do in the midst of this? He establishes a Christian leader [in the South] and names the country the Daehan Minguk. The actual name is "Han". Han. The "Dae" (meaning "great") in "Daehan" is an adjective. When the Daehan Empire was established, King Gojong was using the same concept of "Samhan" for "unity between the three Han nations" that has been passed down.

00:38:13:04 - 00:38:52:29

근데 이 한은 실질적인 이름인 거고요. 이름인데. 그래서 그 당시의 이름들은 다 제국을 붙여 쓰니까

일본제국, 대영제국 이렇게 붙여나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름 자체가 한입니다. 이 나라 이름 한은 한반도 첫째 한씨 왕조와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삼한을 계승하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한의 이념과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성씨가 되는 한씨의 실질적인 결실, 역사적인 결실체인 독생녀를 중심하고서 이 나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섭리적으로 분명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 our real name is "Han". At the time, everyone added "Empire" to their names. For example, the Japanese Empire and the British Empire. Therefore, our actual name itself is "Han". Korea's name has been inherited from Samhan which passes on the traditions of Gojoseon and the Han dynasty that first appear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is providentially clear that Korea's Han ideology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the historical and substantial fruit of the first tribe whose surname became the name of our country—were integrated to create this nation.

00:38:52:34 - 00:39:33:48

그래서 하늘부모님도 나라 이름에 분명하게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있는 이 단어를 반드시 넣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애국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러셨습니다. 그건 뭐냐? 애국가에 그런 한민족이 재림메시아, 독생녀 특별히 초림 독생녀와 더불어서 이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디다 담았느냐. 애국가에 담아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운 그 의미를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정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It is clearly recorded that Heavenly Parented wanted to make sure that Mother's name was in the country's name. In our national anthem it goes, "God protect and preserve our nation. Great Korean people, stay true to the great Korean way!" God made sure that this content was included. What was it? He included in the national anthem the symbolism that the Korean Han people are the chosen people from whom came the returning Lord and especially the only begotten Daughter. By putting this in the national anthem, God made it so the Korean Han people would inherit the Will as the chosen people.

00:39:33:53 - 00:40:09:48

그래서 이 '한'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섭리사관으로 보게 되면 그건 독생녀를 대망하는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실질적인 국호를 '한'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헌국회--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출발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제헌국회에서 왜 대한민국으로 정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언하는 내용들입니다. 17표가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습니다.

What is "Han" ideology? From a providential viewpoint, it is a "Great Hope Theory" that longs for the only begotten Daughter of God. This is how the people of Korea decided to name their country "Han": the Constitutional Assembly—a constitution is necessary to inaugurate a nation, so they need to create a constitution—the Constitutional Assembly makes statements on whether the country should be named Daehan Minguk or not. The name Daehan Minguk wins 17 votes.

00:40:09:53 - 00:40:43:27

이전에 임시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이지 않아요. 미국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다 정부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개인 자격으로 다 들어옵니다. 개인 자격.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고려 내지는 조선, 고려공화국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 대한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을 찾자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d already decided on the name Daehan Minguk yet it was never official. America did not acknowledge the name. After liberation when Koreans [that were abroad] returned to Korea, they did not return officially under the name of their government, but as individuals with personal credentials. This caused many problems. Officially recognized names included Joseon, Goryeo or the Republic of Goryeo, so why did they decide on Daehan Minguk? [Assemblyman Pak Soon-seok] gave the following reason [in his statement], " The spirit of our people came from Daehan. It is our mission to go in search of Daehan."

00:40:43:32 - 00:41:26:58

“우리 모두는 대한을 찾자는 거다. 우리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우리의 대한 임시정부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대한을 찾자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1혁명 투쟁을 통해서 조성된 국호이고, 이 역사적 광영을 가진 국호야 말로 대내적으로는 민족통일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론 민족투쟁의 긍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님께서는 나라가 이제 성립되는 그 즈음에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이복에 계시는 조원모 할머니, 대모님, 그리고 어머님을 남하토록 인도하십니다.

[Assemblyman Jo Guk-hyeon said,] “We must all go in search of Daehan. Or else what did our martyrs, our patriots, and our Provisional Government fight for? We fought for Daehan.” It is clearly recorded, “Daehan Minguk is a name created through the struggle for the March First Revolution. Our nation’s name with its historical honor will become the cornerston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Korea and to all other nations, a sense of pride in the fight for our people.” Going back to Mother, while the country is beginning to form around that time, God, Heavenly Parent, guides Grandmother Jo Won-mo, Daemo nim, and Mother, who are in the North, to go South.

00:41:27:03 - 00:42:06:10

인도를 하시고, 또 하나는 어머님께서 6.25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6.25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저희들은 한국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그게 감이 오느냐.” 저희들은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늘부모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이게 성장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참어머님께서.

They are guided south, and Mother endures the Korean War. Mother often cries whenever she recounts stories about the Korean War.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is because we are not of the Korean War generation, but Mother once said, “Can you understand the feeling?” We cannot. But Mother’s tears run down her face as she recalls the war. True Mother grew up under Heavenly Parent’s fierce protection during that time.

00:42:06:12 - 00:42:40:11

그러면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몸소 이제 깊이 체휟하시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또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린나이지만 평화, 또 사랑” 또 이런거에 대한 것들을 꿈꿔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어린양 혼인잔치를 향해서 참부모 이상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While reliving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she once shared, “I was young, but I still felt deep sorrow for those suffering people and their situation and dreamt of peace and love.” From here, Heaven’s goal, God’s goal, is progressing toward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the True Parents.

00:42:40:16 - 00:43:13:20

그 과정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스스로 라고 하는 저기에 괄호를 쳐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 영어, 라틴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어 번역에는 저 스스로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저게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The Book of Revelations prophecies how this process will be achieved: “Let us rejoice and be glad and give him glory! For the wedding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I put the word “herself” in parentheses on the slides. I did this because “herself” is included in the English, Latin, and Greek versions of the Bible. I don’t know how it was translated in the Japanese Bible, but the word “herself” is missing from the Korean translation. And I thought about why this was.

00:43:13:25 - 00:43:50:41

기독교는 교회가 신부입니다.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재림주조 어린양은.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쌍의 개념으로 보면 독생녀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허락해요. 옷을 준다는 얘기는 권능을 상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양의 잔치로 들어가려면 어린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의미는 뭐냐? 책임분담을 완성하는 겁니다.

In Christianity, the church is the bride. "For the wedding of the Lamb has come." The Lamb is the returning Lord. "And his bride", his wife. From the concept of the pair, this refers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After she has made herself ready, God grants her to be clothed in fine linen. To give clothes means to pass on one's authority. So what does this mean? In order to go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Lamb needs to be ready, and his bride needs to make herself ready. What does it mean to make oneself ready according to the Principle? It is to fulfill one's portion of responsibility.

00:43:50:46 - 00:44:37:31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어머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가운데 성장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여쭙봤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조원모 외할머니, 대모님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어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성장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생녀로서의 책임분담이 무엇인가? 독생녀로서의 책임분담은 해와를 생각해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From this perspective, Mother talks about how she was raised. She says clearly that she grew up having direct communication with God. When asked how long she was doing that for, she said ever since Grandmother Jo Won-mo and Daemo nim told her that God was her Father when she was a little girl. From that point on, she said she could ask questions and receive answers directly from God and was raised by his hand. Furthermore, Mother says, "What is my portion of responsibility as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e question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s

portion of responsibility can be answered by observing Eve.

00:44:37:36 - 00:45:22:58

독생녀로서의 개인적 책임분담은 순결의 완수입니다. 순결의 완수. 어머님께서는 질문을 올렸을 때 독생녀의 개인 책임분담은 순결과 정절이다 그걸 완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문일답하셨고, 또 여쭙봤을 때 어머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대화를 하셨냐면 인간이 왜 태어나느냐,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리고 내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과 일문일답하시는 가운데 답을 얻으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The only begotten Daughter's portion of responsibility on the individual level is the perfection of purity. The completion of purity. When someone asked Mother this question she responded clearly, "My personal portion of responsibility as the only begotten Daughter is purity and chastity. I completed this task. Therefore, I am whole." Ever since Mother was little, she was guided by God and experienced him and talked to him daily. When asked what kind of questions or conversations she had with God, she said she would ask him things like, "Why are human beings born?", "Why do human beings suffer so much?", and "What is my mission?" And God would answer her.

00:45:23:02 - 00:46:06:09

그 가운데 독생녀로서의 개인 책임분담인 순결과 정절을 완수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1959년 가을 무렵입니다. 가을이 지나갈 무렵 자서전 113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 왔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섭리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에 개인적인 책임분담을 완성하신 참어머님을 어린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최종 인침하시게 되는 겁니다.

True Mother completes her individual portion of responsibility to maintain purity and chastity. It is now autumn of 1959. Just past autumn—it's on page 113 of True Mother's autobiography (Korean version) —God appears and says,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and I have been

waiting for the Mother of the universe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What does this mean according to the providence? Just after autumn ends in 1959, True Mother, who completed her personal portion of responsibility, receives God’s final seal as the bride of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00:46:06:14 - 00:46:53:14

그런 가운데 참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결단하셔서 어린양 혼인잔치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스스로 결단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그 순간의 어떤 결단을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늘이 준비하셔서 선민으로 세우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기대, 민족적인 기대, 종족적인 기대, 또 가정적인 기대 위에 개인적인 책임분담을 완수,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위에 당신이 섭리적인 소명을 받아서 감당하시겠다 라고 결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Meanwhile, True Mother herself makes a determination and takes part in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Please note when she made her determination, it did not happen on a whim. Mother made her determination on the foundation of God’s providence to prepare and establish the chosen people, as well as having completed and succeeded in her individual portion of responsibility on the foundation of national, ethnic, tribal, and family levels. Upon this foundation she accepts her providential calling and promises to bear its responsibility. It is with this mindset that she goes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00:46:53:19 - 00:47:38:43

우리가 기존의 참부모님 생애를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그랬습니다. 간택이라는 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천일국시대에 참어머니의 새로운 말씀의 선포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하늘부모님께서 참어머니를 분명히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적 노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국가적, 민족적, 종족적, 가정적, 개인적 책임분담까지 완성하시는 길까지 인도하고 계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모든 것은 하늘이 준비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You might be familiar with the traditional notion of arranged marriages to select a spouse for the royal family. It may even have been phrased that way at school or even in True Parents' life courses. However, in this new age of Cheon Il Guk, True Mother has declared a new truth that Heavenly Parent had a specific providential course to bring about the birth of the True Mother. We can track God's Work on this path through the national, ethnic, and family levels to the completion of Mother's individual portion of responsibility. That is why Mother says, "I have always felt that Heaven prepared everything."

00:47:38:48 - 00:48:20:05

그리고 "재림주님의 상대로 준비된 자신인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다" 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참어머니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면적으로 몸을 바칠 거라고 오로지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은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결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취하신 어린양 혼인잔치는 결국은 한민족을 왜 세웠느냐 하늘이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결론, 1차적인 결론은 뭐냐.

She also said, "Somehow, I always knew I had been prepared to be the returning Lord's partner ." Therefore, Mother, True Mother, speaking about that time said, "I was ready to devote myself entirely to God's Will head-on and I never lost sight of it." She made another determination, "Whatever be your will and providence, I am one with it already." Once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was accomplished, what was the purpose for God to establish the Korean Han people? What is the historical conclusion until now?

00:48:20:10 - 00:49:07:43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바로 참부모를 현현시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재림 메시아도 준비되었고 특히 역사적으로 실체로 탄생하지 않으셨던 독생녀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되었다고 어머니께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완성된 이 성혼식을 통해서 이제 아담해와가 참부모로 실체로 드러나는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The purpose behind why the Korean Han people were selected as the chosen people is for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Ultimately. To do this, God prepared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who had never been born substantially throughout history, on earth. Therefore, through this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purpose for the Korean Han people as the chosen people was also completed. True Mother stressed several times that this consequently realized Heavenly Parent's ideal of creation. Therefore, the Holy Wedding, which completed the purpose of the chosen Korean Han people, succeeded in bringing about the substantial True Parents representing Adam and Eve.

00:49:07:43 - 00:49:48:15

그리고 참부모님이 이 땅에 하늘의 혈통을 정착시켜 가지고 참부모 이상의 완성시대를 열어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인간의 부자지관계 인연을 회복하는 길을 저희들한테 열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한민족을 선민의 민족성을 길러나오셨던 목적은 뭐냐. 이러한 기독교와 연결시켜서 재림 메시아 특별히 독생녀 참어머님을 탄생시키고 인침하시고, 성혼식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ue Parents establish Heaven's lineage here on earth and open the gates to the era of the completion of True Parents ideal. They also open the way for us to restor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Heavenly Parent and human beings. So why did Heavenly Parent choose the Korean Han people and cultivate in them the qualities of chosen people? It was to realize Heavenly Parent's ideal of creation by connecting Christianity to Korea, bring about the birth of the Second Coming and especially the only begotten Daughter, give her his seal, and guide the process toward the Holy Wedding.

00:49:48:20 - 00:50:36:54

따라서 이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됐다는 의미는 참부모가 현현되고, 그러면 한민족을 통해서 한민족의 민족성 가운데 나타났던 그 대망사상. 대망사상의 본질이 뭐냐.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꿈꾸셨던 하늘이 바라셨고, 하늘이 예비하시고 하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왔던 그 섭리의 목적은 참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대망이 실현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참부모 대망이 실현되고 참부모가 현현되고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선민의 개념이 보다 더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확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us, to realize Heavenly Parent's ideal of creation is for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Then what is the essence of the "Great Hope Theory" that was an explicit characteristic within the chosen Korean Han people? It is not one of waiting for a savior centering on a man, but Heaven's hope and dream for the True Parents, for which Heaven led the providence to prepare and make ready. [The essence] is to achieve the great hope for the True Parents. Therefore, we can expand and develop the concept of the chosen peo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and the providence, now that we understand the significance behind the realization of the great hope for the True Parents,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and the realization of Heavenly Parent's ideal of creation.

00:50:36:58 - 00:51:25:41

이전까지의 선민의 개념은 지금까지 역사의 목적이 되는 참부모. 참부모가 현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참부모 현현 재림 메시아와 더불어 실체로 탄생하지 못했던 이 독생녀를 어떻게 탄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목적을 실현시켜 낸 그 한민족 가운데 민족성을 길러와서 이 재림 메시아, 독생녀를 탄생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택했다 라고 하는 선민의 개념이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역사의 목적이 되는 참부모가 현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부터의 선민의 개념은 천일국 선민의 개념은 바로 참부모님에 의해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사건. 거기에 참여한 개인과 가정 종족 민족이 모두 선민이 된다 라고 하는 선민의 개념이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전 천주화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concept of the chosen people was aimed at the history for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Since this was before True Parents appeared. Therefore, God needed to find a way to realize his providence for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by bringing about the birth of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whom there had never been a substantial form. God cultivated the qualities necessary in the Korean Han people and gives birth to the Second Coming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rough them. With this, we understood that the chosen people were "chosen by Heaven", yet the purpose of history was for the advent of the True Parents.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chosen people must change to that of the chosen people of Cheon Il Guk. These are people who have received the Blessing from the True Parents and had their lineage changed to that of God's. This means that all individuals, families, tribes, and peoples who participated in the Blessing can become chosen people. This change of concept is being normalized on universal and cosmic levels.

00:51:25:46 - 00:52:19:24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부모님 하늘의 예비하신 한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성을 길러 왔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사상이라든지 광명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참부모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천지인 사상이라든지 종교가 공존하는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평화애호사상이라든지 이런 천손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그걸 다 상속받으셔서 애천애인애국의 이념으로 일반화 보편화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공영공의의 이념으로 다 정립을 하셨습니다.

In conclusion, Heaven prepared the Korean Han people for the coming of the True Parents and cultivated certain qualities. Among these are 'Hongik Ingan' (to benefit all humanity and Gwangmyeong Thought which True Parents later based the "Heaven, Earth, and Humankind" thought on. In addition, True Parents inherit everything from thoughts and ideologies supporting peaceful coexist between religions, a love for peace, and Heaven's Descendent Thought, and generalize and universalize the ideologies "love God, love people, and love your nation" and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 values. They establish all [existing] ideologies into these [new] ones.

00:52:19:28 - 00:53:17:46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민족성을 그냥 한민족의 민족성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내용을 당시 하늘이 또 찾아 세우신 그 뜻. 참부모님의 사명적인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을 세계와 천주와 완성화 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참부모님을 예비했던 한민족, 한민족의 민족성 가운데 아벨적인 민족성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애천 애인 애국 공생 공영 공의의 이러한 민족성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세계화되고 천주화 되고 완성된 이 시대를 참어머님께서서는 참부모 섭리 완성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at's more amazing is that they didn't stop at just the Korean Han people but were aligned with Heaven's Will and intention behind these ideologies. Throughout True Parents' life missions, they strived to spread and perfect their ideology on the global and cosmic levels. I personally find this very significant. The Korean Han people prepared for the True Parents and the qualities they possessed can be concluded as Abel-type qualities such as love God, love people, love your nation,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 values. The Mother calls the era in which these qualities have been perfected on the global and cosmic levels, the Era of the Completion of True Parents' Providence.

00:53:17:51 - 00:53:52:29

그렇다면 이때의 선민의 책임은 뭐냐 라고 말씀할 때 그 선민은 누구냐면 이 한반도, 지리적 공간적 의미에서의 선민의 개념을 뛰어 넘습니다. 이 선민의 책임은 물론 참부모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 한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적 개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참부모님을 따라왔던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축복가정 들의 책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들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Then when we talk about w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chosen people is, and who the chosen people are, it transcends any geographical or spatial constructs of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rue Parents were born, has great responsibility as the chosen people and as a na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are the Blessed families that followed

True Parents and received the marriage Blessing from them. True Parents' say that their responsibility bears more weight than others.

00:53:52:34 - 00:54:48:04

그럼 선민의 책임은 뭐냐? 참부모 메시아가 태어난 이 땅의 한민족의 사명도 그렇고, 또한 참부모님을 따라왔던 축복가정들의 책임의 핵심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민의 책임이 뭐냐. 그 안의 선민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은 축복이다. 그래서 전 인류를 축복하고 천보가정으로 확산시켜야 된다고 10월 26일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님께서 이 땅의 현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한민족의 민족성은 이제 참부모님을 통해서 세계화, 천주화, 보편화, 일반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What is the chosen peoples' responsibility? What is the mission of the Korean Han people who live on the same land the True Parents were born in, and the core of responsibility that Blessed families who follow True Parents have? True Parents have said that it is to ultimately receive the Blessing.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hosen people? It is to expand the number of chosen people through the Blessing. Thus, [True Mother] said on October 26 that we need to Bless all humankind and multiply Cheonbo families. In that sense, the qualities of the Korean Han people that allowed them to prepare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True Parents on earth are now in the process of becoming universalized and generalized on the global and cosmic levels through True Parents.

00:54:48:06 - 00:55:18:58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참부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부모 메시아를 맞이할 수는 상대 기준이 민족단위, 국가단위가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각 나라마다 참부모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아벨적 민족성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민족이 각 민족마다 각 국가마다 아벨적 민족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참부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면 하늘부모님의 뜻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 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o reiterat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to be able to welcome the True Parents as the Messiahs means the standard has been built on the ethnic and national levels. Therefore, we can assume that every nation has the potential to cultivate Abel-type qualities to attend the True Parents as the Messiahs. If this is the case, every tribe, every nation can possess Abel-type characteristics and can also prepare a foundation to welcome the True Parents. I would like to conclude my lecture by saying that if we succeed in doing so, Heavenly Parent's Will can be accomplished sooner.

00:55:19:00 - 00:55:19:34

감사합니다.

Thank you.